

2017년 예산안에 나타난 스웨덴 노동시장정책의 방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경제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머리말

스웨덴 정부는 2020년까지 유럽연합 국가 중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난민, 이민자들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청년층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인 90일 일자리 보장정책을 확대·시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실업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고용률은 유럽연합 내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지만 스웨덴 정부는 더 많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a).

올해 스웨덴의 노동시장 관련 주요 이슈는 실업률을 낮추는 문제(특히 청년층), 노동시장 내 난민 및 이민자의 활용, 남성의 의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내 양성평등 문제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을 통해 앞서 드러난 노동시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안과 예산 배정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2017년 스웨덴 정부의 예산안에 나타나 있는 노동시장 개혁 및 정책을 살펴보고 노동시장정책의 방향 및 전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2017년 예산안에 포함된 노동시장정책

보건 및 노인돌봄 분야내 단기근로자 교육 및 교사양성과정 강화

스웨덴에서 의료보건 및 노인돌봄 분야는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부문이다. 고용서비스센터의 자료(Arbetsförmedlingen, 2016b)에 따르면 향후 5~10년 동안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로 의료보건 및 복지를 꼽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 정부는 스웨덴 지방정부연합(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SKL) 및 스웨덴 지자체 근로자 노조(Kommunal)와의 대화를 통해 보건과 노인돌봄 분야의 단기근로자 및 간호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 밝혔다. 이 교육훈련제도는 해당 분야에 단기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중요 기술을 교육하고 또 기존의 기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직종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 가져다 주는 효과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노인돌봄의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이 밖에도 스웨덴에서는 학교 교사 및 보육 교사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스웨덴 내에서 교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비인기 일자리 중 하나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교사의 임금을 인상함과 동시에(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5) 학교 교사 및 보육 교사 양성과정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계획이 종료될 2021년에는 3,600여 개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난민 및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난민 및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 문제는 2015년 스웨덴 노동시장 이슈 중 가장 많은 주목과 지적을 받은 부분이었다. IMF는 스웨덴 경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스웨덴 내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웨덴의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 언급하며 전반적인 고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저숙련자와 이민자들에게 실업이 집

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IMF, 2015). 난민 및 이민자들이 구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다양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년 스웨덴으로 망명을 신청한 난민 163,000명 중 494명만이 임시거주허가를 받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는 보도(SVT, 2016)도 있었고, 고용서비스센터는 2016~2017년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16~64세 스웨덴 자국민의 실업률은 2015년 7.5%에서 6.6%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들의 실업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Arbetsförmedlingen, 2016a: 6). 이 밖에도 고용서비스센터는 지난 1년간 스웨덴 내 유럽 외 국가 출신의 실업자 수가 16,000명가량 증가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1년 이상 직업을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다양한 정책(Nystartjobb 및 Extrajobb과 같은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이민자를 포함하고 그들의 초기 정착을 돕는 정책)들을 도입하여 이들을 노동시장 내에서 활동하도록 장려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지만 구직자에게 취업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센터가 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난민과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고용서비스센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난민 및 이민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서비스센터에서 진행 중인 직업소개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제도의 질적인 향상과 구직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서비스센터에 2017년 5억 2천만 크로나, 2018년 5억 7천만 크로나, 2019년 7억 크로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직업소개제도를 더욱 합리화하고 간소화하여 구직자들이 빠르게 직업을 구하거나 학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고용서비스센터에 2017년 9,000만 크로나를, 2018년에는 5,500만 크로나를 지급하여 난민들이 난민지위 획득을 위해 기다리는 기간 동안 그들의 교육수준과 이전 직장 경력들을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난민들의 교육과 기술을 평가하는 이 계획안이 난민들을 더욱 빠르게 스웨덴 사회에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내에서 활동하게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현 정부는 난민들이 스웨덴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여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초기 적응 및 정착을 돕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초기 정착과정은 스웨덴어 교육과 스웨덴 사회의 이해와 같은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투입되는 비용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공공부문에 새로운 임시일자리 제공

현재 스웨덴은 저학력자의 실업률이 높은 편인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 낮은 자격요건, 교육수준을 가지고도 일할 수 있는 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최근 스웨덴에 유입된 39세 이상의 이민자 중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기술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30,000여 명 정도 된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공공기관 내 일자리를 제공해 노동 시장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근로자들의 주 업무는 파일 정리, 복사, 행정처리, 기록물 디지털화, 환경미화과 같은 단순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급여는 노조의 단체협약에서 결정된 급여수준으로 지급하며, 최대 2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인데 이때의 단기근무 경험이 차후의 장기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c).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현재 스웨덴 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병가 역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2014년 이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년 1억 크로나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근로환경 문제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고자 다양한 정책과 개선방향을 담은 2016~2020 근로환경개선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사망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산업재해 예방,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구축, 사회심리적으로 안정된 근로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송지원, 2016). 이와 같이 스웨덴 정부가 근로환경개선전략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 근로환경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감독관의 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독관을 추가로 선발하여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근로환경청에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2017년 예산안에는 25명의 감독관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2,500만 크로나의 예산지원 계획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근로환경의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

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양성평등 관련 이슈

올해 스웨덴 노동시장 내 양성평등 관련 이슈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사용기간 확대와 여성이사제 할당제 법안의 도입 여부였다. 올 1월부터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진전이 더디다는 이유로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사용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pappamånad)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만일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기로 한 부모의 경우 전체 유급육아휴직 기간인 13개월(총 기간 16개월 중 유급육아휴직 기간은 13개월, 390일) 중 남성에게 의무할당된 3개월을 뺀 10개월의 기간만 유급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의무사용기간의 확대는 여성 노동가능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를 통해 양성평등한 근로환경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Sverigesradio, 2015).

이 밖에도 올해 스웨덴 정부는 여성이사할당제 법안 도입을 주장하였다. 2016년 기준 스웨덴 기업 내 여성이사진의 비율이 32%까지 상승했으나 그 상승폭이 예전보다 더딘 것을 지적하며 여성이사할당제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그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에 2019년부터 25만~5백만 크로나까지 벌금을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로 내년 초 다시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The Local, 2016).

예산안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여성 근로자의 병가사용 증가에 대해서도 양성평등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또한 정부는 2018년 양성평등기구(Gender Equality Agency)를 설립하여 현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페미니스트 정부의 모습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a).

새출발 일자리 (Nystartjobb) 제도의 개혁

2016년 9월 기준, 스웨덴 청년(16~24세 기준)의 실업률은 11.7%로 작년 9월의 13.4%보다 감소하였다. 고용서비스센터의 아니카 순덴(Annika Sundén)은 스웨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활성화된 노동시장과 노동자들의 높은 수요가 200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청년 실업률을 이끌었다고 밝혔다(Sverigesradio, 2016). 이렇게 개선된 수치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을 통해 청년실업 관련 정책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다.

새출발 일자리(Nystartjobb)는 고용주가 6개월 이상 실업에 놓여 있는 청년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정부가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7년에 도입되었다. 청년 실업률의 증가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고용주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에 있던 이들을 고용할 경우 주어지는 보조금의 액수를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3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고용하거나 이민자들을 고용할 경우 더욱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는 특히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들에게 더욱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기타

이 밖에도 예산안을 통해 근로환경과 구직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근로환경, 구직과 관련하여 교통과 주거공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온 주거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2016년 6월, 주거공간 건설을 확대하는 새로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운전면허 미취득이 구직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운전면허 수업에 대한 학업지원대출(National Board of Student Aid, CSN)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a).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스웨덴 정부의 2017년 예산안 중 노동시장 관련 정책 계획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스웨덴 정부가 노동시장 내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현재 스웨덴 노동시장 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난민 및 이민자의 노동력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서비스센터의 기능강화 및 임시 일자리 제공과 같은 단기 해결책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특정 부문(보건, 노인돌봄, 교사)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기술훈련 및 교육으로, 근로환경 개선의 문제는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면서 스웨덴 정부의 해당 사안에 대한 시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예산안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유럽연합 내 최저 실업률 달성을 비롯해 다양하면서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장단기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 역시 노동시장 내에서 달성하고 개선해야 할 목표들을 명확히 하고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KL**

참고문헌

- 송지원(2016), 「스웨덴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 전략」, 『국제노동브리프』 16(6), pp.76~86.
- Arbetsförmedlingen(2016a), “Arbetsmarknadsutsikterna våren 2016.”
- _____(2016b), “Var är det lättast att få jobb i framtiden?,” Retrieved Dec 2, 2016, from <https://www.arbetsformedlingen.se/For-arbetssockande/Tips-och-rad/Nyheter/Nyheter-for-Arbetssockande/2016-11-30-Var-ar-det-lattast-att-fa-jobb-i-framtiden.html>
-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15), “Regeringen presenterar lärarlönelyft,” Retrieved Dec 2, 2016 from <http://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15/06/regeringen-presenterar/>
- _____(2016a), “Budget Statement,” Retrieved Dec 1, 2016, from <http://www.government.se/4a6f9e/contentassets/08c1cdf5ddf345e796015e4d54ce49ca/from-the-budget-bill-for-2017-budget-statement>
- _____(2016b), “Ministry of Employment initiatives in the Budget Bill for 2017,” Retrieved Dec 1, 2016, from <http://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16/09/ministry-of-employment-initiatives-in-the-budget-bill-for-2017/>
- _____(2016c), “Regeringen satsar på moderna beredskapsjobb i staten,” Retrieved Dec 1, 2016, from <http://www.regeringen.se/artiklar/2016/05/regeringen-satsar-pa-moderna-beredskapsjobb-i-staten/>
- IMF(2015), “Sweden: selected issues,” Retrieved Dec 1, 2016, from <https://www.imf.org/external/pubs/ft/scr/2015/cr15330.pdf>
- Sverigesradio(2015), “Regeringen klubbar förslag om tredje pappamånad,” Retrieved Dec 1, 2016, from <http://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83&artikel=6175615>
- _____(2016), “Allt färre unga är arbetslösa.” Retrieved Nov 30, 2016, from <http://>

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83&artikel=6537353

- Svt(2016), “162.000 kom till Sverige – 500 fick jobb,” Retrieved Nov 30, 2016, from <http://www.svt.se/nyheter/inrikes/162-000-kom-till-sverige-500-fick-jobb>
- The Local(2016), “Put more women on your boards or be fined, firms told,” Retrieved Dec 1, 2016, from <http://www.thelocal.se/20160909/put-more-women-on-your-boards-or-be-fined-firms-told>